

## 李賢輔 〈漁父歌〉에 담긴 두 現實에 대한 認識構造

梁熙讚\*

### 〈국문초록〉

본고는 龔巖 李賢輔의 〈漁父歌〉에 담겨 있는, 江湖와 社會(朝廷)에 대한 두 현실에 대한 認識構造를 고찰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작품 내용의 짜임새를 분석하고, 글감들과 표현들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 및 그 의미의 작품 내적 역할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립된 두 현실인식을 설명하였다.

첫째, 〈漁父歌〉 5수의 내용과 배열에 대해서이다. 작품내용은 '江湖의 삶에 대한 最上の 滿足'을 공통주제로 작품 (가)는 漁父生涯에 대한 價値評價를, 작품 (나)는 紅塵世界와의 斷絶을, 작품 (다)는 어부의 삶에 대한 滿足을, 작품 (라)는 江湖의 本性을, 작품 (마)는 江湖에의 安住를 다루었다. 그리고 작품 배열은 유기적이고 繼起的인 連鎖構成을 갖추었는데, 작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江湖와 社會의 성격이 대비되어 있다. 강호는 無心하고 多情하여 平靜心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사회는 治世에 대한 異見對立으로 不協和가 심하여 시름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작자는 사회와 단절하려고 하고, 강호에 安住하려고 한다.

셋째, 강호의 성격이다. 그 본성은 '無心'과 '多情'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합일되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삶터이다.

넷째, 화자의 성격이다. 먼저, 화자는 사회에서 강호에 진입해 온 외부인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에서의 事君以忠의 규범을 거부하지 않은 채 사회

\* 全北大

현실과는 단절하면서 江湖에서의 安住를 志向하는 二重的 삶의 認識을 나타내고 있다. 사군이층의 규범인식은 사대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며, 李賢輔 자신의 글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두 現實認識의 성격이다. 강호에 대한 지향은 사회에서처럼 대립의 갈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사회에 대한 단절은 강호에서처럼 불협화 없이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인식의 차이에서 작자는 강호의 '無心'과 '多情'을 사회의 불협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李賢輔 자신이 판단한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無心'과 '多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教化의 효용성을 전제하고, 이현보의 기록 단편들을 참조하여, 이 작품의 성격을 겉으로는 개인 서정을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조정 관료들에게 치세의 자세를 경계한 작품이라고 규정하였다.

**핵심어** : 현실(現實), 인식구조(認識構造), 시름, 강호(江湖), 무심(無心), 다정(多情), 평정심(平靜心), 제세(濟世), 이중적 인식(二重的 認識), 계기적 연쇄구성(繼起的 連鎖構成)

## 1. 머리말

이 고찰은 李賢輔의 <漁父歌>에 반영된 강호와 현실 사회에 대한 認識構造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실마리로 삼는 것은 두 글감이다. 그 하나는 '시름'인데, 시조 여러 작품들에서 자주 사용되어 있다. 또 하나는 '江湖'의 성격인데, 삶의 공간으로 紅塵의 世間과 대비되어 江湖의 自然이 자주 사용되었다. 龔巖을 정점으로 영남 士林文學이 본격화되었고 동시에 江湖歌道가 전개되었다<sup>1)</sup>는 점에서 龔巖의 작품

1) 金東俊, '李賢輔論', 古時調作家論, 韓國時調學會 編, 白山出版社, 1986, 29쪽.

은 중요시된다.

이 논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각 작품의 내용을 주요 글감과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종합하여 작품 5수의 내용을 통합해 다루는데, 作意를 드러내고 있는 큰 의미들을 대상으로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고, <漁父歌> 5수가 한 주제를 유기적으로 다룬 한 편의 連時調라는 것을 해명한다. 이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漁父歌>에 담긴 현실인식—강호 현실과 사회 현실(朝廷)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작자가 애초에 가졌던 創作意圖를 설명할 것이다.

## 2. <漁父歌>의 概觀

- (개) ①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②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③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 (내) ①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青山 ② 十丈紅塵이 언제나 ㄹ렛는고 ③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
- (대) ① 靑荷에 바늘 박고 綠柳에 고기 빼여 ② 蘆荻花叢에 비 매야 두고 ③ 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라실고
- (래) ① 山頭에 閑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이 飛라 ② 無心코 多情하 니 이 두 거시로다 ③ 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 (매) ①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② 漁舟에 누어신돌 니즌 스택 이시라 ③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라

<漁父歌><sup>2)</sup>는 5수로 된 連時調인데, 漁父의 生涯에서 느낀 감흥을 다

2) 이 작품들은 『聶巖集』(韓國文集叢刊 17, 民族文化推進會) 卷三 '歌詞'에 수록된 것이다. 『校本歷代時調全書』와 珍書刊行會本 『靑丘永言』에 수록된 작품과는 철자의 차이는 있어도 배열 순서는 같다. 초·중·종장을 ①②③으로 표시함.

루면서 濟世에 대한 태도를 接合시켜 複線의 짜임을 이루고 있다.

濟世와 관련되는 글감은 '시름'을 비롯하여 '人世'·'十丈紅塵'·'北關'·'濟世賢'이 사용되어, 江湖에 安住하려는 작자의 志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江湖志向에 해당되는 글감은 '一葉扁舟'·'綠水'·'靑山'·'閑雲'·'白鷗' 등인데, 濟世의 글감들과 상대적인 의미관계에 있다. 이 상대적인 의미관계를 담은 표현들은 '人世를 다 니젯거니' '十丈紅塵이 언매나 ㄹ렛논고'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등과, '이 둥에 시름 업스니' '一般靑意味를 어니 부니 아르실고' '無心코 多情호 니' 등을 들 수 있다. 이 표현들을 대비해 보면, 〈漁父歌〉의 성향이 江湖에서의 삶에 뜻을 두되, 그 원인이 일반적으로 '紅塵'으로 대변되는 사회 현실의 어떤 양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漁父歌〉 5수의 내용과 배열은 '만족한 漁父의 生涯'를 공통된 내용으로 다루면서, 강호에서의 안주에 초점을 맞추어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작자가 江湖와 人世(紅塵)를 체험하여 판단하고 인식한 결과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작품 (가)는 漁父生涯에 대한 價値評價를, 작품 (나)는 紅塵世界와의 斷絶을, 작품 (다)는 어부의 삶에 대한 滿足을, 작품 (라)는 江湖의 本性을, 작품 (마)는 江湖에의 安住이다. 이 내용을 다시 배열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작품 (가)에서 강호에서의 삶의 意義를 전제로 제시하고(發端 : 起), 이어 작품 (나)에서 그 삶의 태도(展開 : 承1)와, 작품 (다)에서 그 삶의 즐거움(危機 : 承2)을 개인적인 감흥을 표명하여 강호를 이상적인 삶터로 인식한다. 특히, 작품 (라)에서는 강호 본래의 속성인 無心과 多情으로, 개인적인 그 감흥의 본바탕이 되는 平靜心을 제시하여 강호의 이상적인 위상을 규정(絶頂 : 轉)한 다음, 끝으로 작품 (마)에서 사대부가 해야 할 '濟世'의 일마저 거부하고 그러한 江湖에 安住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漁父歌〉 5수는 배열된 순서 그대로 5단 또는 4단의 유기적

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 3. 作品內容의 짜임새

3-(가) ① 이 둥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 ②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③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①이 “이 둥에”는 ‘漁父의 生涯’를 근거로 ‘어부로서 살아가는 중에’라고 풀이된다. 이 삶의 단편적인 모습이 ②“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로 제시되어 있다.

①의 “시름 업스니”는 ‘어부의 생애’를 평가하는 端緒이며, 이로써 ‘어부의 생애는 시름이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시름이 없음’이 어부의 삶에서 비중이 아주 큼을 뜻한다. 이 작품의 요지를 추리면 ‘시름이 없으니 날 가는 줄을 알라’가 되는데, 이것은 이 작품에서 ‘시름이 없음’의 비중과, ‘어부의 생애’의 가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②“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와 ③“人世를 다 니젯거니”의 작중 정서적 의미는 ①“이 둥에 시름 업스니”와 ③“날 가는 주를 알라”와 결합되어서야 드러난다. “날 가는 주를 알라”는 편안하고 즐거운 日常을 함축한 표현이며, 그 함축된 의미는 일반적인 용례이다. 이 표현과 그 의미가 이 작품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둥에 시름 업스니”의 작용 때문이다. 시름이 없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즐거울 것이다. 이 평범한 설명에서도 ‘시름이 없음’이 전제요 원인이요 이 설명의 발단으로서 중요한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작품의 문맥에서도 “시름 업스니”가 그 省略인 ‘평안한 마음 상태’로써 그 뒤의 다른 표현들에 작용하는 역할도 분명한 것이다. 이로

써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는 어부의 여유 있고 한가한 삶을 일상의 행위로 형상화한 것이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는 그 즐거움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 즐거움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人世를 다 니젯거니”를 “시름 업스니”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人世를 다 잊었으니, 시름이 없다.’ ‘시름이 없으니, 人世를 다 잊었다.’ 이 두 문장은 앞의 두 구절을 결합하여 추출한 것인데, 두 문장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앞 문장은 ‘人世를 잊었다’는 사실에 국한된다면, 뒤의 문장은 시름이 없어 평안하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과 함께 人世까지 모두 잊게 되었다는 平靜心을 숨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의 상대적 위상 차이를 감안하면, 큰 의미의 표현과 작은 의미의 표현을 분별하여 작품 세부의 해석과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 작품의 초점은 ‘어부의 생애’에 맞추어져 있다. ‘시름이 없으니, 날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즐겁다. 그러니 (‘과연 다른 무엇보다도 비할 데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어부의 생애로다.’ 이러한 절대 만족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 ①이고, ②와 ③은 이 심리를 구체적인 사례로 부연한 것이다.

3-(나). ①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② 十丈紅塵이 언매  
나 ㄱ렛느고 ③ 江湖에 月白호거든 더욱 無心호애라

①“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은 背山臨水라는 화자의 삶터, 곧 어부의 삶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공간 江湖를 함축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②“十丈紅塵이 언매나 ㄱ렛느고”에서 “十丈紅塵”은 작품 (가)의 “人世”와 의미가 같으며, ‘十丈紅塵을 가림’은 ‘人世를 다 잊음’과 같은 의

미의 표현이다. 그리고 “언매나 ㄴ렛는고”에서 ‘얼마나’는 ①의 ‘千尋’·‘萬疊’의 깊이와 높이와 상관되고, ‘가렸는고’는 미확인 사실에 대한 확인 의도를 드러낸다. 이 확인 의도는 그 강과 산으로 ‘紅塵이 다 가려졌다’는, 해결의 확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물음의 형태는 독자에게도 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강조하는 수사적인 부수적 효과도 있다. 결국, ②는 이 작품이 어부의 삶터(江湖)와 ‘紅塵’과의 의미대응관계에서 對社會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작품 (가)의 “人世를 다 니젯거니”도 마찬가지이다.

③“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에서 ‘江湖에 月白함’은 삶터인江湖에 紅塵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킨다. 그리고 ‘月白’은 화자의 ‘無心’심리와 연결되어 숨을 것도 피할 것도 없어 편안한 無愁의 삶 현장을 보여준다. 이 ‘삶의 현장’은 화자의 心狀 실체이다. ‘無心’은 紅塵이 차단되어 다투거나 마음 불편할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뜻하고, ‘더욱’은 녹수 청산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는 삶이 無愁의 삶을 강화한다.<sup>3)</sup>

이 작품의 초점은 ‘無心無愁한 장소’인 강호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에 있다. 이 삶에 대한 지향은 홍진의 세계를 거부하는 태도이며, 이 태도는 화자가 강호를 홍진의 세계에서 벗어나 무심무욕한 삶을 살

3) 金興圭는 “달빛이 회개 내리비치는 강호—채색이라고는 전혀 없거나 극히 억제된 墨畫의 엄격성 속의 강호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규정된 상황은 곧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내면 상태와 조응 관계를 이룬다. … 무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세속의 名利에 대한 잡념이나 그 밖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듯하다. … ‘더욱’의 의미가 이 대목에서 긴요하다. … 그는 ‘萬頃波’나 ‘千尋綠水’ 앞에서 이미 무심 즉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경지는 흰 달빛이 비추는 강호에 이르러 보다 순수한 차원으로 고양된다. … 극도로 단순하게 표백된 景觀을 바라보면서 획득하는 내면적 억제 및 ‘現象으로부터의 초월’가지를 뜻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江湖自然과 정치현실』,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54~155쪽.)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해명한다. 그리고 녹수 청산이 ②에서 홍진을 차단하는 방패로 제시되었다가 ③에서 무심의 상태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보호막이라는 의미를 덧붙여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은 (가)의 ③“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를 부연 확장한 성격을 갖는다.

3-(다). ① 靑荷에 바늘 뺀고 綠柳에 고기 썰여 ② 蘆荻花叢에 비 매야 두고 ③ 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르실고

①“靑荷에 바늘 뺀고 綠柳에 고기 썰여” ②“蘆荻花叢에 비 매야 두고” 이 표현은 格式을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자유로와 편안한 삶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자유로와 편안함은 홍진세계에서 공식적인 격식의 속박과 개인적 思言行爲의 사회적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對人關係의 性格에 대응되며, 강호에서의 삶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독자적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③“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르실고”에서 “一般淸意味”는 그 자유로와 편안한 삶에서 만끽하는 喜悅을 뜻한다. 그 행위를 ①②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어니 부니 아르실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의 희열을 자신만이 알고 즐긴다는 개인적 판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개인적 판단’의 ‘개인적’이란 말뜻은 작품 (나)에서 설명한 ‘일반 사람(어니 분)들이 사는 紅塵世界(人世)와의 단절’을 끌어오면 더욱 뚜렷해진다.

이 작품의 초점은 강호에서의 삶에 대한 지극한 自足心狀에 있다. 이것은 작품 (가)의 ③“날 가는 주를 알라”와 작품 (나)의 ③“無心호애라”의 의미를 이어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 작품이 다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은 다섯 작품 중에서 아주 간략하고 단



일하게 作意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3-(㉔) ① 山頭에 閑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 | 飛라 ② 無心코 多情  
 情 ㅎ 니 이 두 거시로다 ③ 一生에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①“山頭에 閑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 | 飛라” 이 표현은 작품 (㉔)의 ①“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의 내부 情景 묘사이며, ‘閑雲’ ‘白鷗’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게 하는 글감이다. 이 묘사는 작품 (㉔)의 ①에서 확인되듯이 화자도 그 안에 그것들과 함께 있음을 시사하며, 바로 (㉔)에서 화자가 삶의 만족을 만끽하며 둘러보는 시야 안의 정경인 것이다. 이 표현과 글감들은 작품 (㉔)·(㉕)·(㉖)에서 단편 또는 전체로 묘사된 강호의 공간과 상태를 한꺼번에 미세한 부분까지 보여준다.

②“無心코 多情 ㅎ 니 이 두 거시로다”에서 ‘두 것’은 ①에서의 ‘閑雲’과 ‘白鷗’이다. ‘無心하고 多情함’은 화자가 그 둘에게서 느끼는 情感이다. 이 정감은 ‘山頭閑雲’과 ‘水中白鷗’가 對를 이루어 ‘閑雲’의 閑暇함이 물에 비치고, 그 물위를 나르는 백구도 閑興을 머금고 한가로움에 젖어 전체 공간이 한가한 분위기로 채워지고, 그 공간에 함께 있는 화자 또한 그 분위기에 젖어든 心狀을 설명한다.

閑雲과 白鷗는 그곳에 있던 존재이지만, 화자는 외부에서 그곳에 들어와 새로 참여하게 된 존재이다. ‘무심하고 다정함’은 그곳의 본래 상태인데, 외부인인 화자가 그것을 느껴 흡족하여 발언함으로써 노출된 것이다. 화자의 이 감정 표출은 화자가 그 정경에서 느낀 閑興과 그곳의 한가한 상태가 合一됨을 뜻한다. 이 합일상태는 인위적인 것이 없이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다. 이 상태가 ‘無心’의 상태이며, 이에 감응된 심리상태를 ‘多情’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 이러한 화자의 同化는 작품 (내)의 '無心', 작품 (대)의 '一般靑意味'에서 표출한 心狀에서 이미 그 발단을 암시하고 있다.

③“一生애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이 표현에서 ‘너를 좇아 놀리라’라는 의도는 그곳의 閑暇한 상태와 화자의 閑興이 습—된 상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그 둘을 흉내내어 똑같이 지려는 심리적 의도를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 ‘좇아 놀다’라는 행위이다. 그리고 閑興은 화자가 ‘閑雲’과 ‘白鷗’의 모습에서 한가로움을 느끼고, 이 외적 자극에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내적 충동이 일어, 그 둘과 어울려 그들과 동반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의 結晶이다.

‘一生애’는 이 문장에서 그 뜻이 ‘남은 여생 동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름’은 ‘살아온 그 동안의 시름’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함축하게 되고, 이 함축은 이 작품군 전체에 펼쳐 적용할 수 있다. 작품 (가)에서의 ‘시름’에는 시간 요소가 없고 특별하게 한정된 성격이 없는데, 작품 (래)의 ‘시름’을 적용시키면 시름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작품 (가)에서 ‘어부’가 된 時期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작품 (래)의 ‘시름’이 갖는 특정한 성격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작품 (가)에서의 ‘人世를 잊음’, 작품 (내)에서의 ‘십장홍진을 가림’은 시름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 전제는 시름을 체험하여 판단한 결과의 행위이기에 이 작품들에서 ‘시름’은 ‘그 동안 살면서 겪은 시름’이라는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강호, 곧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데 있다. ‘人世’와 訣別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도와, 그 의도의 요인인 閑暇함은 ‘無心’의 자연상태와 ‘多情’이란 감응심리로 제시된다. 이 새로운 삶을 규정하는 데는 ‘山頭閑雲/水中白鷗’가 주된 요인이며, 이 둘은 특정한 공간의 특정한 존재를 뜻함으로써 화자가 이 둘에 同化된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지향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작품 (대)의 ‘어니 분’은 ‘山頭閑雲/水中白鷗’와 의미 대립을 이루므로 ‘홍진세계

에 사는 임의의 모든 사람'을 뜻함을 확인할 수 있다.

3-(㉞) ①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② 漁舟에 누어신들 니  
 즈 스택치 이시랴 ③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랴

①“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이 표현에서 ‘長安’과 ‘北關’은 공간의 넓고 좁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임금이 계신 곳’을 뜻한다. 이것은 다시 ②의 ‘잇은 적이 없음’과 결합되어 ‘임금(에 대한 忠心)’으로 구현된다.

②“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택치 이시랴”에서 “니즌 스택치 이시랴”는 임금(에 대한 忠心)을 잇은 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獨白이다. ‘漁舟에 누워 있음’은 작품 ㉞의 ②와 같은, 강호에서의 삶을 換喩한다.

이 두 내용, ‘漁舟에 누워 있음’과 ‘임금(에 대한 忠心)을 잇은 적이 없음’은 의미가 상충되어 自己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이 작품 5수 전체에 걸쳐 화자가 강호에서 一般淸意味를 만끽하며 無心하고 多情하여 한가롭게 살면서 ‘人世를 다 잇었다’고 선언한 것은 현실적 실제행위로서의 事君以忠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 자기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부 개인의 개별적 삶을 영위하면서, 실제행위가 아닌, 사회 규범으로서의 事君以忠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설명논리이다. 이러한 삶과 인식은 현실적 삶과 규범적 삶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삶이며 인식이다.

③“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랴” 이 표현에서 ‘내 시름’은 작품 ㉞의 설명에서처럼 이미 人世에서 겪은 시름이며, 이 시름을 거부하여 ‘내 시름 아니라’고 하는 태도는 그 시름을 남은 여생 동안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이 ‘내 시름 아니라’를, ‘濟世賢이 없으랴’

와 ②의 '잇은 적이 있으랴'와 연결하여 판단하면, 전자로써 事君以忠의 현실적 수행을 거부하고, 후자로써 사군이충을 規範으로서만 받아들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事君以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잇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事君以忠을 규범으로서만 받아들인 관점의 표명인 것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강호에의 安住에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삶에는 임금과 사회에 대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 갈등은 강호에 살면서 '임금을 잇은 적이 없다'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인) 濟世賢이 업스랴'라고 표명한 두 발언 사이에 숨어 있다. 이 갈등은 '人世'와 '紅塵世界'로 표현된 仕宦世界에서의 삶을 거부하는 한편, 사군이충의 규범을 價値觀의 次元에서 인식하는, 화자 자신의 이중적 처세 태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③을 화자의 속마음으로 다시 읽으면, '濟世는 내 관심 밖의 일이다. 제세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나는 여기 강호에서 살겠다.'고 숨긴 뜻을 밝힌 선언에서이다.

## 4. 作意의 形象化

### 4-1. 意味의 形象化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어부의 생애에는 시름이 없다)는 어부의 삶을 산 결과로 그 삶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어부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시름'이 무엇인지는 작품들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를 해명해 볼 근거로, 흔히 인용하는 <詩經> 「大序」의 앞부분 “詩者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이라 한 것에서 “마음속에서 情感이 作動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情動於中而形於言.” 한 것이나, 白景炫의 「東歌選序」에 “옛사람들은 만물에 접촉하여 感興이 일어나면 말을 代用하여 생각을 표현하였다古人之觸物起感代語道懷”<sup>4)</sup> 한 것을 들어 볼 수 있다. 이것을 설명방법으로 적용시켜 보면, 앞의 규정은 화자가 어부로 살면서 그 삶과 환경을 체험하여 마음속에 하나의 思考結晶으로 형성된 情感(感興)을 ‘시름이 없다’는 인식으로 대체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情感이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를 기점으로 작품들에 확산되어 “날 가는 주를 알라”, “無心호애라”, “一般清意味를 어니 부니 아리실고”로 표출되었다.

다른 한 예는 객관적인 묘사의 표현인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青山”이다. ‘굽어보다’와 ‘돌아보다’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화자의 시선이 향하는 前後上下의 공간을 함축하고, ‘千尋’과 ‘萬疊’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과장하여 아주 堅剛한 상태를 암시한다. 이 표현은 자연의 엄청난 威容을 형상화한 것이며, 이 威勢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일반적으로 최고의 數値인 ‘千’ ‘萬’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묘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작품 내적 의미 전개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각 특별한 의미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예가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蘆荻花叢에 비 매야 두고”, “漁舟에 누어신들”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은 단순한 행위 묘사들이다.

또 다른 예로 작품 (대)의 “靑荷에 밥을 빚고 綠柳에 고기 썰여”를 들 수 있다. 이 표현에서 연상되는 것은 <論語> 「述而」章에 공자가 제시한 삶의 정의이다. “(진수성찬이 아닌) 형편없는 밥과 (국 대신에) 물로

4) 吳漢根, 歌集 “東歌選” 編者考, 국어국문학 11호(국어국문학회, 1954. 9.)  
이 글에서 白景炫(1792년~1846년 이후)의 <悟齋集>에 수록된 「東歌選序」, 全文을 소개하였다.

끼니를 때우고 (베개 없이) 팔을 베고 자야 하더라도, 삶의 즐거움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으면, 떳떳하지 않으면서 부귀한 삶은 나에게서는 뜬구름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 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 이 말은 ‘삶의 즐거움(樂)’에 초점을 두었다. ‘靑荷에 싹 밥, 綠柳에 켜 고기’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飯疏食飲水’이다. 여기서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면서 격식을 개의하지 않음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의 자세를 암시한다. 삶의 즐거움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는 개인적 삶의 공간이 확보되고, 대인관계가 제한된 상태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人世’를 잊고 ‘紅塵’과 단절하려는 것은 형식적인 격식을 벗어나려는 의도이며, ‘千尋綠水’ ‘萬疊靑山’에 안주하려는 지향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로 선언된 것이다.

이 세 예로 작품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글감이나 표현들이 함축하고 있는 속뜻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으로 작품이 갖춘 외형적 내면적인 유기적 짜임을 설명할 수 있다.

#### 4-2. 漁父의 삶

어부의 삶은 ‘시름이 없는 삶’이다. 시름이 없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漁父歌〉의 作意는 ‘시름이 없음’을 근간으로 한다. 이 ‘시름이 없음’을 구체화시켜 주는 것은 ‘人世를 잊음’과 ‘紅塵을 가림’이다. 이 두 부류의 성격을 분별하면, ‘시름이 없음’이 個人的 判斷이라면 ‘人世를 잊음’과 ‘紅塵을 가림’은 對社會的 態度라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작품 (가)에서 ①의 “이 둥에 시름 업스니”를 ③의 “人世를 다 니젯거니”와 자리를 서로 바꾸면, 作意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漁父의 生涯’의 성격이 대사회적인 의도로 전환시켜 작품 내적 敘情이 급박하여 거칠어지고 자연스럽지 못해진다. 이것은 ‘3-(가)’에서 설명한 대로 두 표현의 그 의미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곧, 그 사회적 태도는 개인적 판단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름이 없음’의 개인적 판단은 대사회적 판단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풀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그 사회의 실상과, 시름이 없는 개인의 실상이다. 이것이 파악되어야 그 판단과 태도를 포함하여 어부의 삶까지 해명할 수 있다.

시름이 없는 개인의 실상은 “날 가는 주를 알라” 등으로 표출된 감흥을 매개로 하여 확인된다. 이 감흥은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등으로 표현된 외적인 가시적 행위의 내적 心狀이다. 이 외적 행위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人世를 잊음’과 ‘紅塵을 가림’이다. 이것만으로는 그 행위와 감흥이 隱遁 및 出世間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漁父歌>에는 이런 성격이 없다. 작품 (나)에서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는 규범인식이 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작품 (라)의 ‘無心하고 多情함’이다. 작품 (나)에서 ‘無心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 ‘無心함’은 ‘홍진을 가림’ 이후의 心狀인데, 홍진세계의 慾心을 전제로 하여 평안한 심상을 형상화한 표현이며, 이 심상은 화자 개인의 심상이다. 작품 (라)의 ‘無心함’은 ‘閑雲’과 ‘白鷗’, 곧 江湖의 특유한 屬性이다. 이 두 ‘無心함’의 합일, 곧 화자가 강호의 무심함에 갖게 된 친근한 심상이 ‘多情함’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상황을 합쳐 ‘시름이 없음’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이로써 <漁父歌> 全般에 걸쳐 형상화된 ‘漁父의 生涯에 대한 만족’이 해명된 것이다.

## 4-3. 漁父行爲의 舍意

어부의 행위는 작품 (가)의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작품 (나)의 “蘆荻花叢에 비 매야 두고”, 작품 (마)의 “漁舟에 누어신들”에서 직접 표현되었다. 이 세 표현은 <漁父歌>에서 화자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들이다. 이 단편들로는 화자가 어부임은 단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표현들이 작품에서 자체의 역할을 가져야 그 가치가 있으며, 작품 또한 유기적으로 짜였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표현들이 의미를 설명하는 데는 그 중 표현이 세밀한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를 대상으로 한다. 만경파가 일렁이는 큰 강은 人世에, 만경파는 世波에, 일엽편주는 작자 자신에 비길 수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작자가 체험한 두 대상인 ‘人世·世波’와 ‘강·萬頃波’는 작자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그것은 전자에 대해서는 같등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같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人世의 世波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어 항상 충돌의 가능성과 충돌 후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강의 萬頃波를 타면 오직 한 사람 작자 자신만이 있기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만경파가 이는 넓은 강이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유유자적할 수 있는 까닭은 강이 무심하고 다정한 강호이기 때문이며, 어부의 마음상태 또한 평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舍意를 찾았을 때, 어부가 만경창파에 배를 띄워 타고 있는 모습은 여유 있고 한가한 정경이며, 그 속의 감흥을 형상화한 것이 된다.

이 감흥을 작품에 직접 표출한 것이 작품 (가)의 “날 가는 주를 알랴”, 작품 (나)의 “더욱 無心호애라”, 작품 (마)의 “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랴실고”이다. 작품의 외적 표현상태에서 이 표현들이 요긴한 것은 그 감흥, 곧 閑興을 직접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등의 함의를 전제로 하고, 이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 4-4. 시름의 正體

<漁父歌>에서 題材인 ‘시름’이 작품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이다. 그러므로 이 ‘시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당면 문제이다. 이 작업은 ‘人世’ ‘紅塵’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측면을 드러내는, 작품 (甲)의 ‘濟世’에서 시작한다.

앞의 ‘3-(甲)’에서 작품 (甲)의 내용을 살핀 대로 ‘北關(長安)을 돌아봄’과 ‘임금을 잊은 적이 없음’은 작품 (乙)의 ‘十丈紅塵과의 단절’에 상반되는 행위이며, (甲)‘千里’의 거리는 현실적으로 北關(임금)을 떠나 있는 絶緣狀態를 나타내어 단절과 같은 뜻을 갖는다. 특히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라”라는 발언은 임금과의 절연상태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화자의 절연 표명과 이에 상반되는 행위가 공존하는 것에서 화자의 언행에 모순이 있음이 지적된다. 이 모순은 모순이기보다, ‘3-(乙)’와 ‘3-(甲)’에서 설명된 대로 개인적인 강호인식과 사회규범인식에서 드러나는, 강호와 사회라는 두 현실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 개인의 삶 속에 공존하는 二重的 思考結晶의 發露인 것이다.

이 이중적 사고의 실현은, 개인적 차원에서, 현실에 대한 만족감으로 임금과의 절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인 公人의 차원에서, 규범인식으로써만 임금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즉, 전자는 개인의 삶에서 公的인 仕宦行爲를 거부한 것이고, 후자는 개인의 삶에 公的인 社會規範意識이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공적인 삶은 규범이라는 정신적 측면에서 가치관으로서만 존재하며, 사적인 삶은 현실생활의 측면에서 실제로 영위되는 생활상태이다. 그러므로 작자는

〈漁父歌〉의 作意를 후자에 두고서, 사군이충의 규범을 현실생활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내 시름이 아니다'라고 표명한 것이다. 곧, 이 표명은 사회 현실과 江湖 현실의 실제적인 구획을 선언한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 시름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시름'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다. 우선, 문맥에서 그것은 '임금'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의 내용은 '임금이 내 시름이 아니다.'이다. 이것을 '임금이 내 시름이다.'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濟世'를 결합시키면, 시름의 대상은 임금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治世)이 된다. 治世는 임금이 하지만, 관리들이 보좌하고 대신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事君以忠의 규범에 따라 화자도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화자가 이 일을 '시름'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화자는 작품 (가)에서 '人世'를, 작품 (나)에서 '十丈紅塵'을 잊어버릴 만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품 (매)의 '濟世賢'은 '人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들을 가리킨 말이다. '濟世'는 단순하게 治世를 뜻한 말이 아니며, 혼란한 세태를 바로잡아 다스리려는 것보다 관리들의 異見對立들로 벌어지는 혼란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화자가 사대부, 곧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한 현실이다. 화자가 사대부로서 그 말은 일을 '시름'이라고 말한 것은, 백성은 교화하여 다스리면 될 것이니 그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조정 관리들이 벌이는 혼란상태로 귀결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작품 (매)의 '無心하고多情한 이'는 중요한 설명자료가 된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정한 상태는 조정의 혼란상과 비교될 수 있다. 江湖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정하여 무심할 수 있어서 평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다. 화자가 무심하고 다정하여 평정한 삶터를 찾아 紅塵의 人世를 떠나 강호에 안주하려고 결단한 것은 仕宦의 朝廷이 平靜心을 상실한 삶

터였기 때문이다.

#### 4-5. 作品排列의 性格

<漁父歌> 5수의 작품 배열은 작품 (가)의 漁父의 삶에 대한 최상의 滿足을 제시하고, 이 최상의 만족에 대해서 작품 (나)에서의 삶터인 江湖에 대한 만족과, 작품 (다)에서의 삶의 日常에 대한 만족을 다루었다. 작품 (나)·(다)의 삶터와 일상은 어부의 생애 全般을 대변하는 세부 요소이다. 작품 (라)에서는 작품 (나)·(다)의 요지를 수렴하여 그것을 강호의 자연에 합일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삶터와 바람직한 삶의 전형을 제시하여, 작품 (매)에서 濟世의 삶에서 江湖의 삶으로 轉換하는 결정을 내려 완결된다. 이 결정으로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가 다시 구가되면서 이 작품의 내적 순환이 일어난다. 이 내적 순환은 작품 사이에 유기적인 繼起的 連鎖構成을 갖추어서 가능한 것이다. <漁父歌>의 구성을 서사적 5단 구성이나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작가의 계획된 구성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구성을 각 작품의 핵심부분으로 제시하면, 작품 (가) ①“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 → (나) ①“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 (다) ③“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르실고” → (라) ②“無心코 多情호 니 이 두 거시로다” → (매) ③“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 (가) ①“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로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漁父歌> 5수는 낱낱의 작품이 아니라 작자가 일정한 구도에 맞추어 짠 한 편의 連詩調이다.

## 5. 두 現實에 대한 認識

여기서 現實이란 人世(紅塵)에서의 仕宦의 삶과, 江湖에서의 삶, 그리고 그 環境 및 條件을 포괄하여 화자가 겪는 狀況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현실은, 어디에서든지 노출된 공간 안에서 영위하는 삶과 그 행위들을 통해 확인되지만, 작자는 어떤 경우에 그 현실을 드러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어떤 매개를 사용해 암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認識이란 한 개인이 전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는 두 공간에서의 삶과 그 여건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比較하고 判斷하는 思惟行爲를 말한다.

### 5-1. 話者의 性格

李賢輔(1467·세조13~1555·명종10)는 仕宦은 燕山朝 때 두 번 謫 流配를 당한 것말고는 무난하였다. 龔巖은 40대부터 省親을 위해서 거듭 辭職하려 하였는데, 中宗은 휴가를 주거나 고향 부근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 <漁父歌>에서 작중화자는 長安·北闕 및 人世·紅塵에서 멀리 벗어나 江湖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歸鄉者이다.<sup>5)</sup>

5)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2집(1997), 중종 37년 7월 3일.

이날 기록에 사신이 농암의 인물을 이렇게 논평하였다. “집에 있으면서는 담담하게 지냈고, 틈이 있으면 이웃을 찾아가 도보(徒步)로 상중하면서 전사옹(田舍翁)으로 자처(自處)하였다. 집 앞에 큰 시내가 있어 배를 띄울 만했는데, 가끔 손님과 더불어 중류(中流)에서 노[槥]를 두드리며 두건(頭巾)을 뒤로 높이 제쳐 쓰고 서성거리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마치 신선과 같았다.”

같은 CD-ROM, 명종 10년 6월 28일.

이날 그의 卒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중종조와 인종조에 그의 조용히 은퇴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품계를 올려 소환했지만 모두 오지 않았다. 금상조

화자가 강호에 살게 된 원인은 사회생활의 측면에서는 ‘人世’의 ‘紅塵’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無心하고多情한江湖’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작품 ④의 ‘閑雲과白鷗를 쫓아 놀리라’라고 한 화자의 의도에서 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예를 단순하게 언급하면, 농암이 겪은, 燕山朝의 士禍 및 勳舊派와 士林派의 심한 異見對立을 보인 不協和 實狀 등 조정에서의 혼잡한 정황을 들 수 있다.

화자가 人世를 떠나 강호에 들어온 것은 작품 ④의 ‘일생의 시름을 잊고 閑雲과白鷗를 쫓아 놀리라’에서 확인된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삶의 공간과 현재 상태만 언급되었다. ‘일생의 시름을 잊다’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쫓다’는 이 문맥에서 ‘뒤따르다’의 뜻이 확장되어 ‘참여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일생의 시름을 잊고 쫓아 놀다’라는 행위가 화자와 ‘閑雲·白鷗’의 관계가 轉入者와 原住者임을 드러낸다. 실제 현실에서 작중 강호는 농암의 고향이다. 이 고향의 典型的 本質을 ‘無心’과 ‘多情’으로 규정된 것은 농암 자신이 志向하는 삶의 자세가 그것에 있음을 뜻한다. 이로써 사회 현실을 ‘紅塵’이라고 표현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고, 사회가 協和로多情하기를 바라는 그 속생각을 드러내어 볼 수 있다.

그런 한편, 작품 ④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사대부이기에 당연한 윤리규범적 사고이다. 이것은 조정의 불협화와는 무관한, 事君以忠의 자세이다. 농암이 中宗 38년(1543년, 77세)에 올린 辭職上疏에 “몸에 견마(太馬)의 책임이 없다고 하여 비록 강호(江湖)에 처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있다

---

(今上朝)에도 명소(命召)했지만 또한 극력 사양하고 이어 상소하여 일을 논했는데 당시의 병폐를 아주 잘 맞추었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담박하고 욕심이 없어 시골에 있을 때에는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관에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근래에 만년의 지조가 완전하였던 사람으로 이현보를 으뜸으로 친다.

면 고삐를 놓아 건무(峽畝)에 있더라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sup>6)</sup>라고 진술하고, 명종 4년(1549년, 83세)에 老職으로 崇政大夫에 加資한 것을 사양하는 箋을 올렸는데 그 글에 “초야에 있으면서 멀리 대궐을 우러르는 마음 항상 간절하였는데 …… 백발 여생으로 묘당(廟堂)에의 뜻은 비록 끊어졌으나 단심(丹心)만은 살아 있으니 삼가 강호(江湖)에 서의 걱정이나 본받을까 합니다.”<sup>7)</sup> 하였다. 특히 뒤의 글에서 “초야에 있으면서 멀리 대궐을 우러르는 마음”은 이 작품 (태)의 “漁舟에 누어신 돌 니즌 스치 이시라”로 형상화되었다 할 만하다. 이것은 感君恩을 진언하는, 욕심 없는 늙은 선비의 모습이다.

## 5-2. 두 現實에 대한 認識

〈漁父歌〉에서 두 現實이란 두 삶터—朝廷과 江湖에서 화자가 겪은 狀況이다. 이 상황은 화자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한 글감 및 표현을 대상으로 정리한다.

작품 (가)의 ‘人世를 잊음’과 ‘날 가는 줄을 모름’, 작품 (나)의 ‘十丈紅塵을 가림’과 ‘無心함’ 이 두 표현에 대립된 세부 내용은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다. 문장론의 측면에서는 그 반대로 전자가 원인이고 후자가 결과이다. ‘人世를 잊고’ ‘紅塵을 막으려고’ 한 까닭이 ‘강호에서 사는 것이 날 가는 줄 모름’ 만큼 즐겁기 때문이고, ‘無心하여’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화자의, 사회 현실에 대해 판단을 추출하면, ‘人世(紅塵)—朝廷에서의 관료생활은 즐겁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작품 (태)의 ‘일생의 시름을 잊음’과 작품 (매)에서 ‘임금을 잊은 적은 없지만, 내 시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6) 같은 CD-ROM, 중종 38년 5월 10일.

7) 같은 CD-ROM, 명종 4년 12월 14일.

다. 작품 ②의 '일생의 시름을 잊음'은 작품 ③의 '人世를 잊음'과 뜻이 같은 표현이다. 화자의 이 시름은 임금의 아님이라, 바로 앞 절에서 언급한 朝廷의 不協和인 것이다. 시름의 대상이 임금이고 治世에 관련된 것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조정 관료들이 事君以忠으로써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화자는 사회 현실—조정 관료들의 태도에 대하여 강호의 본성인 '無心'과 '多情'으로써 보이지 않는 警戒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호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강호는 일생의 시름을 잊고, 人世마저 잊을 수 있는 一般清意味'가 가득한 상태이다.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작품 ②의 '無心하고 多情함'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閑雲과 白鷗'은 서로 함께 어울리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 공간의 일부로서 강호라는 공간 전체에 전혀 불협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調和를 뜻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만을 성실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작품 내적 의미는 인간사회에서도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여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을 중요하게 여겨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을 閑雲과 白鷗의 모습으로 예시하고, '無心'과 '多情'이란 말에 함축한 것이다. 그런 삶이 강호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閑雲과 白鷗처럼 사는 모습을 '漁父가 萬頃波에 띄워둔 魚舟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앞의 '3-(내)'에서 <漁父歌>의 對社會的 性格과, '3-(매)'에서 화자의 二重의 삶과 認識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江湖의 本性인 '無心·多情'을 바탕으로 사회 현실에서 치세하는 조정 관료들을 경계하려고 한 의도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漁父歌>는 작자 개인이 산 삶의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단순한 강호 지향으로 읽히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런 반면, 教化라는 작품의 효용성을 전제하거나, 觀巖의 말 "밥 한 술을 먹을 때도 초야에서 조정을 근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못하고 있

음”<sup>8)</sup>을 참고할 때, 이 작품은 한낱 개인 서정을 표출한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그치고 말 것이 아니다. 강호에서 아무 시름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에서 태평성대를 연상할 수 있다. ‘無心’과 ‘多情’은 그 정확한 방법이 된다. 이 생각은 관직 실무를 떠나 향리에서 여생을 사는 老職堂上이 事君以忠을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漁父歌〉는 겉으로는 個人 抒情을 표현하고, 속으로는 治世의 姿勢를 警戒한 작품이다.<sup>9)</sup>

## 6. 마무리

본고는 龔巖 李賢輔의 〈漁父歌〉에 담겨 있는, 江湖와 社會(朝廷)에 대한 두 현실인식을 고찰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작품 내용의 짜임새를 분석하여 글감들과 표현들 사이의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인식을 해명하였다.

작품 내용의 짜임새를 분석하여, 다섯 작품들은 강호의 삶에 대한 최

8) 같은 CD-ROM, 명종 9년 2월 25일(1554년, 88세).

9) 金興圭(같은 책, 157쪽)는 “「어부가」의 세계는 … 개인적으로는 혐오스러운 관료생활로부터 물러난 이현보 자신의 비관적 정치현실 인식과 내면주의 지향의 抒情化라고 할 수 있다. 「어부가」가 가진 금욕적 관조의 시선과 자기억제 그리고 강호—속세라는 양분법적 전망은 이러한 역사적 바탕과 사고방식 위에서 이루어진 특징들이다.”라고 설명한다.

辛映明은 “농암이 강호자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독선을 통한 이념적 순수성의 천명뿐이다. 이것만으로는 혼탁한 정치현실을 직접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이 경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종장의 ‘시름’(작품 卮: 필자)은 바로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농암은 결국 정치 개혁의 실천이라는 겸선의 노력을 일단 유보한다. ‘濟世賢’에게 자신의 과업을 미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신 농암은 시름없는 漁父의 生涯를 택한다.”고 설명한다.(사대부시가의 연구, 태학사, 1996, 83쪽.)



상의 만족을 주제로 각각 독립된 내용을 담으면서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4단락 또는 5단락의 유기적인 繼起的 連鎖構成을 갖춘 연시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작품에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對社會的 性格과, 事君以忠의 규범을 거부하지 않은 채 사회 현실과는 단절하면서 江湖에서의 삶을 志向하는 二重的 삶과 認識을 지적하였다.

<漁父歌>의 현실인식은, 사회 현실(朝廷)은 治世에 대해 異見對立으로 불협화가 심하며, 江湖는 '無心'과 '多情'으로 즐겁고 평안하다는, 화자의 판단으로 설명하였다. 이 강호에 대한 판단은 龔巖 자신의 지향하는 삶의 자세이다. 이 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핵을 이루는데, 강호의 '無心'과 '多情'을 사회 현실(朝廷의 不協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 결론하였다. 아울러, 敎化의 효용성을 전제하고, 왕조실록에서 龔巖에 대한 단편기록들을 참조하여, 이 작품의 성격을 겉으로는 개인 서정을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조정 관료들에게 치세의 자세를 경계한 작품이라고 규정하였다.

#### <참고문헌>

- 李賢輔, 『龔巖集』, 韓國文集叢刊 17, 民族文化推進會.  
 沈載完, 『校本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黃淳九, 靑丘永言研究. 부록 吳氏本 『靑丘永言』, 금방울사, 1980.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2집, 1997.  
 吳漢根, 歌集“東歌選”編者考, 국어국문학 11호, 국어국문학회, 1954.  
 金東俊, '李賢輔論', 古時調作家論, 韓國時調學會 編, 白山出版社, 1986.  
 辛映明,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金興圭, 욕망과 형식의 詩學, 대학사, 1999.

<Abstract>

### A study of 'Songs of Fisherman' in Sijo

Yang Hee-C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o consider the structure of dualistic recognition between "Gang-Ho"(ideal sanctuary) and real world in the "Songs of Fisherman" written by Lee Hyeon Bo. In order to do this job, I analyzed the arrangement of the contents and extract the exact in and outward meaning of elements and expressions; usage of them between lines of this Song. Based on these works, I tried to *explain the confronted recognitions of the two worlds.*

At the first, about the arrangement and contents of this poem, It is consisted of 5 independent sub-poems and each of them are describing the value of fisherman's life(at the poem 가), separation from mundane world(나), satisfaction of fisherman's life(다), nature of "Gnag-Ho" (라), domiciliation in the place(마). It looks like that the writer intended to have the arrangement probability and likelihood connecting poems.

Secondly, It contrast the nature of the "Gang-Ho" and real world. The sanctuary is a place of 'absence of worldly desire' and 'cordiality' that could afford one's harmonious life. On the other hand, the real world is a troublesome place which always conflicts political confrontations. For those reasons, the writer wants to satisfy with his living in "Gang-Ho" separating himself from the real world.

Thirdly, The nature of "Gang-Ho" is 'absence of worldly desire' and

'cordiality' that one could be deserved his diligency becoming a part of the harmonious idealistic living place.

Fourthly, on the character of story teller. Originally he is a incomer of "Gang-Ho" from real world. so that reason, he is showing dualism not to deny the loyalty oath to his king, while he intends to satisfy with the life in "Gang-Ho" separating himself from real world. As a gentry, at that time, the loyalty oath is inevitable one and that is found from writer's other works either.

Fifthly, Characters of the different world recognition. The main reason of his intention to "Gang-Ho" roots on out of worldly confrontations, his separation from real world is on a joyous peaceful life just like in "Gang-Ho". this study believes the writer imply that 'absence of worldly desire' and 'cordiality' of "Gang-Ho", be a key role to resolve the confrontation of real world. Lee Hyeon Bo himself regards the two elements as a advisable attitude of life.

At last, Seeing the writer's other work and literature's educational effect, this study defines that even if the poem outwardly express one's lyricism but inside it warns governors ruling attitude.

*Keywords* : recognition, Gang-Ho, absence of worldly desire, cordiality, troublesome place.